

“더 좋고 살기 좋은 익산 조성될 것”

익산시민사랑포럼, 아마추어 가족대항 친선 볼링대회 성료... 생활체육 인프라 확산 등 큰 기여

익산시민사랑포럼(대표 박상문)은 포럼 출범식과 배산공원 환경정화캠페인 등을 치른 뒤 제1회 아마추어 가족대항 친선볼링대회를 익산시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응원을 받으면서 최근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라볼링장 2층에서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박상문 대표(유)일성종합건설 대표, 신해석 수석부대표(원광대총동문회 부회장), 박종식 부대표(전 재향군인회 회장), 나국현 전략지문위원(군장대 석좌교수), 서문재 전략지문위원(전 익산시 3선 시의원), 김동수(영농법인 대표)/이명기(호원대 교수) 스포츠체육자문위원, 김성연 사무총장(비이크레트 대표), 윤상노 재무국장(익산월드라볼링장 대표), 양승무 청년국장(행정사), 장영세 의전국장(전 용포농협조합장)등 임원, 회원, 가족 등 참석한 가운데 즐겁고 열띤 경기가 이루어졌다.

참가한 아마추어 친선볼링대회 참가자들은 40대 이상으로서 과거 학창시절에 볼링 트레이닝과 친선경기 등 기억을 되새기면서 열린 예선과 본선을 치러 1등부터 풀치상까지 상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고 시상과정에서 회원들 간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행사가 됐다. 이 때문에 본 포럼에서 주최한 친선볼링대회가 나후된 볼링종목을 익산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확산과 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시민사랑포럼(대표 박상문)은 제1회 아마추어 가족대항 친선볼링대회를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라볼링장 2층에서 성황리 개최했다.

익산시민사랑포럼은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바탕으로 익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갈등의 합리적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전략을 기획 개발하여, 설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 다양한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익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으로 출범했다.

한편 박상문 익산시민사랑포럼 대표는 “포럼 출범

식 이후 익산시민으로써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배산공원 환경정화캠페인, 아마추어 가족대항 볼링대회 등을 치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등을 매번 할 때 보다 더 좋고 살기 좋은 익산시가 조성될 것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포럼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 약속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여청과, 실종예방 코드아담 대상시설 실무자 간담회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최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코드아담 대상 시설 실무자들과 함께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익산시 관내 코드아담 운영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익산시 예술의전당 등 총 9개소가 운영중 에 있고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각 관리주체가 수립한 자체 지침 및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른 실제 이행 여부, 자체 교육·훈련사항 등에 대한 점검, 관리주체로서 시행 상 문제점, 애로사항 등 운영요율화와 공동협력력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익산=장인천 기자

남원시, 공직자 대상 남원가야 바로알기 교육 실시

남원시는 3일 시청강당에서 기아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의 일환으로 남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원가야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에서도 거론된 남원가야(남원 유곡리와 두리리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 사항에 대해 남원시 공직자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강연은 30년 동안 전북가야를 연구·조사해 온 가야사 권위자인 군산대학교 객장근(가야문화연구소 소장)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1500여년 전 문봉고원 일대에서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남원가야의 역사적 위상과 역할, 문화유산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자원봉사활동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는 최근 2019년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사랑의 빵배우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평소 제과제빵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미리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만든 따뜻한 빵과 쿠키 등을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알찬 봉사활동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고 남원 홈마트 베이커리(김종신 제빵사)의 재능기부로 추진되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2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도내 예술인 5명의 문화 예술 작품을 만나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조환섭)은 지난달 31일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해 'Art Collaboration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도내 예술인 중 도민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인 김누리, 장지은, 임민택, 이미나, 김시우 예술인의 작품을 백화점 2, 3, 8, 9층에 선보이고 월마다 작가의 작품이 변경된다. /김영태 기자



정읍 이평파출소(덕천치안센터), 도학초 유치원생 견학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 이평파출소(소장 김영식)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덕천치안센터에 견학 온 덕천면 도학초등학교 유치원생 6명에게 경찰의 임무 체험 행사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치원생들은 처음 와 보는 덕천치안센터에서 눈높이에 맞는 교통사고예방 교육과 경찰차 탑승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덕천센터장 및 김창완 경위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경찰 업무 및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통학차량 탑승요령을 설명하고 순찰차 탑승 및 무전기 사용, 삼단봉을 직접 만져 보면서 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JC, 미래인재양성 위한 제1회 청소년페스티벌 개최

군산청년회의소(회장 백용준)가 지역 내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군산JC는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군산청년회의소가 '제1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재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해소와 세대간의문화를 공감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랑 포스터그리기 대회와 청소년 희망 페스티벌 2개 부분으로 진행됐다. 또한 본 행사와 함께 손세정제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3D펜 체험, 보드게임, 교전놀이 등 체험마당 및 놀이마당, 먹거리 마당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힐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